

해운

추가적인 운임 인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낮은 계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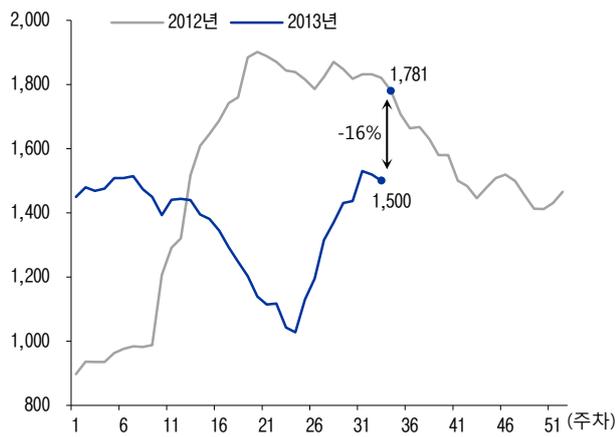
2013. 9. 3

2011년 7월 이후 역대 최저치 계선율, 운임 하락의 전조

운송
Analyst 김민지
02.3779-8843
mjkim@etrade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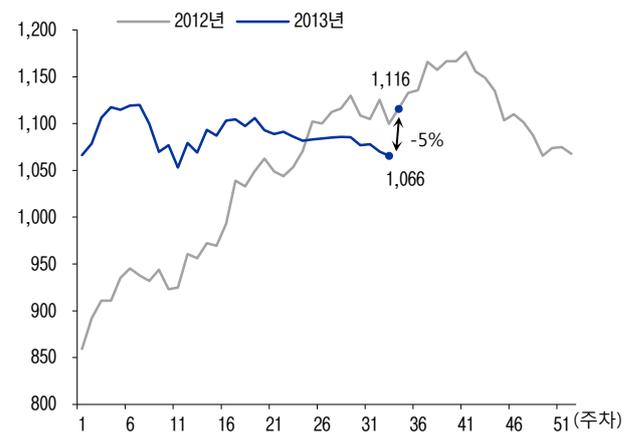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지수가 지난 6월 초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,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최고점(1,152)대비 98%수준까지 회복했다. 그러나 아직 2012년 운임보다 -10% 가량 낮은 수준이며 유럽노선의 경우 -16%, 미 서안노선의 경우 -5% 차이를 보이고 있다. 더 중요한 점은 최근 계선율이 2011년 7월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(2.6%)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. 그림 3과 같이 컨테이너운임은 계선율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. 따라서 최근 크게 하락한 계선율을 바탕으로 차후 운임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.

[그림1] 2012년과 2013년의 CCFI Europe 노선 운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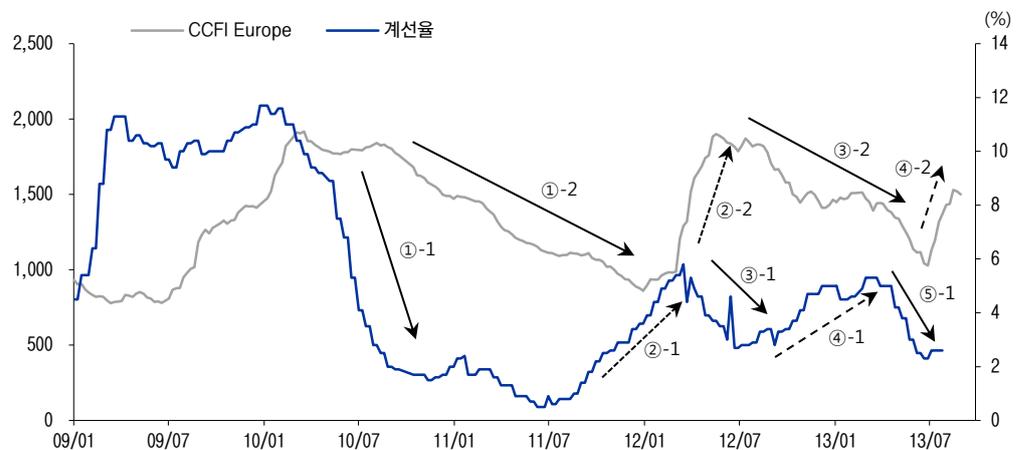
자료: 상해항운교역소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2] 2012년과 2013년의 CCFI 미 서안 노선 운임 추이



자료: 상해항운교역소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3] 계선율과 Europe 노선 운임의 추이



자료: 상해항운교역소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김민지)
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종목투자등급 guide line: 투자기간 6~12개월,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(Strong Buy/ Buy/ Marketperform/ Sell)
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: 투자기간 6~12개월,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(Overweight/ Neutral/ Underweight)
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(Buy/ Hold/ Sell)에서 4단계 (Strong Buy/ Buy/ Marketperform/ Sell)로 변경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	적용기준(향후12개월)
Sector(업종)	Overweight (비중확대)	
	Neutral (중립)	
	Underweight (비중축소)	
Report(기업)	Strong Buy (강력매수)	절대수익률 기준 50% 이상 기대
	Buy (매수)	절대수익률 기준 15%~50% 기대
	Marketperform(시장수익률)	절대수익률 기준 -15%~15% 기대
	Sell(매도)	절대수익률 기준 -15% 이하 기대
	N.R.(Not Rated)	등급보류